

한은, 기준금리 1.25% 동결

경제성장률 전망 2.8%→2.7%로 낮춰... 실제성장률 하락 지속 땀 잠재성장률도 떨어질 수 있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기존의 2.8%에서 2.7%로 내렸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도 1.2%에서 1.1%로 하향 조정했다.

한은은 14일 오전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만장일치로 현 수준인 1.25%로 동결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기준금리를 1.25%로 인하했기 때문에 이번달에는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 전망이 우세했다. 한은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이례적인 상황이 아니면 2개월 연속 금리를 내린 전례가 없다.

정부가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추경) 예산을 편성해 하반기 재정 절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점도 금리동결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설명회에서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등으로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점 등을 고려해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다"며 "한은은 앞으로도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유지하며 경기회복세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이 조기에 편성 돼 효과적으로 집행될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은의 금리인하와 정부의 재정보강이 경제성장률을 0.2%포인트 정도 끌어올릴 것으로 추정한다"며 "단 추경 집행 시기와 편성 계획 등에 따라서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기존 2.8%에서 2.7%로 낮췄다.



"달려라!" 14일 오전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 올림픽체육관에서 2016 지능형 모형차 경진대회가 진행되고 있다. 올해로 14 회째를 맞는 지능형 모형차 경진대회에는 자율주행자동차의 핵심 기술인 차선 유지와 긴급제동제어, 자율비상 제동, 충돌회피를 구현했으며 50여개 대학 120개 팀, 600여명 학생이 참가한다.

한은이 지난해 1월 발표했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3.7%였다. 이어서 4월 3.4%, 7월 3.3%, 10월 3.2%로 매년 낮아졌다.

이 총재는 "대외 경제여건이 악화되다 보니 경제 전망이 당초 예상에서 빛나기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번에도 최근의 국내외 경제여건 변화를 고려해 올해 국내 경제를 다시 짚

어본 결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7%로 예상했다"고 설명했다.

장기적 관점의 잠재성장률마저 추가 하락 우려도 나타났다.

한은은 지난해 경제 구조 변화와 실제 성장률 추이 등을 반영해 2015~2018년 잠재성장률을 3.0~3.2%로 추산했다.

이 총재는 "실제성장률과 잠재성장

률이 일대일로 매치되는 건 아니지만 실제성장률 하락이 이어지면 잠재성장률도 떨어질 수 있다"며 "저출산 고령화가 빠르게 진전되면서 생산 가능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추후 잠재성장률 하락은 충분히 예견 가능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도 1.2%에서 1.1%로 낮아졌다.

한은은 "저물가 상황이 지속하면서 기대인플레이션율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임금상승률 둔화, 경제심리 위축 등을 통해 소비자물가의 추가적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며 "그러나 최근까지도 기대인플레이션율과 임금상승률이 안정되어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올 말 1%대 중반으로 높아지고, 내년 상반기에는 2.0% 수준으로 전망했다.

한편 한은은 이날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을 1.2%에서 1.1%로 하향 조정했다.

“저물가 기조, 국제유가 하락이 주된 원인”

한은 물가안정 설명회... 소비자물가 상승률 올해 말 1%대 중반·내년 상반기 2.0%

한국은행이 저물가 기조가 이어지는 주요 원인으로 국제원자재 가격의 하락을 꼽았다. 한은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올해 말 1%대 중반으로, 내년 상반기에는 2.0%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14일 한은은 물가안정 설명회에 앞서 배포한 "최근의 물가안정목표제 운영상황 설명"을 통해 "국제유가 등 국제원자재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밝혔다.

한은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제유가는 오름세를 보였으나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서는 여전히 35% 정도 낮은

수준(두바이유 기준)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국내 석유류 가격의 하락이 1~6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약 0.8%포인트 정도 끌어내렸다고 한은은 분석했다.

수입물가의 하락도 소비자물가를 낮춘 요인으로 조사됐다.

한은은 "올 들어 수입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 가량 하락했다"며 "수입물가의 하락은 가격인하 압력으로 작용했다"고 진단했다.

다만 원·달러환율은 1~6월 중 전년 동기 대비 약 8% 상승해 소비자물가를 높이는 방향으로 움직였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한은은 아울러 "수요 측면에서 물가 상승률을 낮추는 데도 '공급 충격'에 민감한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인플레이션율이 금년 1~6월 중 1.7%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수요요인에 의한 물가 하락 효과는 크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앞서 한은은 전년 동기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개월 연속으로 물가안정목표치에서 0.5%포인트 이상 벗어나면 그 원인과 전망에 대해 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한은이 2018년까지 적용할 중기 물가안정목표는 2.0%다.

하지만 올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5%를 밑돌았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월(1.3%), 3월(1.0%), 4월(1.0%)을 제외한 1월, 5월, 6월에는 0.8%를 기록하며 0%대에 머물렀다.

한은은 "저물가 상황이 지속하면서 기대인플레이션율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임금상승률 둔화, 경제심리 위축 등을 통해 소비자물가의 추가적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며 "그러나 최근까지도 기대인플레이션율과 임금상승률이 안정되어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올 말 1%대 중반으로 높아지고, 내년 상반기에는 2.0% 수준으로 전망했다.

한편 한은은 이날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을 1.2%에서 1.1%로 하향 조정했다.

네이버 '라인' 오늘 美·日 동시 상장

약 1조5000억원 조달... 인수합병 등 전략적 투자 활용

네이버의 모바일 메신저 '라인'이 15일(현지시간) 일본과 미국에 나란히 상장,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하는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14일 네이버는 "라인의 미국과 일본 상장은 독자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회이자, 거대한 자본과 브랜드를 앞세운 글로벌 기업들과의 경쟁에 더욱 기민하고 적극적으로 나서게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라인주식회사는 상장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신규 사업을 위한 인수합병 등의 전략적 투자에 활용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네이버 창업자인 이계진 의장은 임직원들에게 '네이버는 PC 시대에서는 1등이지만 모바일에서는 꼴찌로 추락할 수 있다'고 위기를 강조해왔다"며 "라인의 미국·일본 상장은 글로벌 시장에서 모바일 경쟁력을 인정받은 사례라 네이버에 남다른 의미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2011년 6월 23일 첫 선을 보인 라인인 일본에서 대성공을 거두며 태국, 대만 등으로 진출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시장을 선점한 카카오

특에 밀려 점유율이 낮지만 오히려 일찌감치 해외 시장에 눈을 돌리는 계기가 됐다. 라인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지난해 12월 기준 전세계 2억1500만 명이다.

한편 최근 공모를 마친 라인은 공모율이 25배에 달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 13일(현지시간) 일본 닛케이 신문은 라인 공모주 신청 열기가 기대 이상이라고 보도했다. 특히 라인의 성장성을 높이 평가한 해외 투자가 비율이 높았다. 도쿄에서 해외 투자자의 공모 배율은 20배대 후반을 기록했다.

닛케이 신문은 "올해는 세계 유수 정보기술(IT) 기업의 대형 상장이 적어 라인주에 자금이 풀리기 쉬운 여건"이라고 분석했다.

라인은 3500만주 신규 발행으로 최대 1320억원(약 1조4471억원)의 자금을 조달한다. 라인이 도쿄 증시에 상장하면 시가총액이 공모로만 계산해도 6929억원(7조5963억원)에 이르게 된다.

라인의 일본 공모가는 3300엔(약 3만7000원), 미국 공모가는 32.84달러(약 3만7601원)로 결정됐다.

안진수 기자



한국GM, 2017년형 다마스·라보 출시

한국지엠은 국내 유일의 경상용차인 다마스와 라보의 2017년형 모델을 출시했다고 최근 밝혔다.

신형 다마스 라보는 주행 중 타이어 공기압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 차량의 미터클러스터를 통해 운전자에게 경고신호를 전달하는 타이어 공기압 경보장치를 적용해 주행안전성을 높였다.

또 다마스의 시트, 스티어링휠 커버, 도어트림 등에 적용되던 인조가죽 옵션을 라보에 확대 적용했다.

신형 다마스의 가격은 5인승의 경우 다마스 코치 리빅(Libiq) 모델 993만원, 슈퍼(Super) 모델 1028만원이며 2인승의 경우 다마스 패넬밴 DLX 모델 988만원, 슈퍼 모델 1013만원이다.

신형 라보는 일반형은 STD 모델이 838만원, DLX 모델이 873만원, 롱카의 경우 DLX 모델이 888만원, 슈퍼 모델은 908만원이다. 이 밖에 보냉탑차 1098만원, 내장탑차 1018만원, 탑차 1053만원, 접이식탑차 1093만원이다.

안진수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